

‘氣歸精 精歸化’에 대한 研究

¹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과학교실 · ²제한동의학술원 ·
³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⁴원광대학교 한국전통의학연구소
송지청^{1, 2} · 엄동명^{3, 4}*

A Study on ‘Ki goes to Essence and Essence goes to Change’

Song Jichung^{1, 2} · Eom Dongmyung^{3, 4}*

¹Dept. of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²Jehan Korean Medical Academy, Daegu Haany University

³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⁴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Objectives : The Phrase, Ki goes to Essence and Essence goes to Change in Eumyangeungsangdaeron in Suwen have contradiction in direction of Ki. Because this phrase linked to relation of Taste, Shape, Ki, Essence and Change, each others are supposed to be treated systematically.

Methods : We will review on annotations of past doctors and new opinions of resent scholars.

Results : Ki has two meanings in this phrase ; Ki of food and Ki of ability in human nature.

Conclusions : From the Taste through Shape to Ki of food are the way of Eum aspect and from the Ki of ability through Essence to Change are the way of Yang aspect.

Key Words : Eumyangeungsangdaeron, Suwen, Taste, Shape, Ki, Essence, Change

I. 序 論

『素問·陰陽應象大論』의 ‘氣歸精 精歸化’는 앞의 ‘味歸形 形歸氣’와 더불어 동일한 문장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은 味는 形으로, 形은 氣로, 氣

는 精으로, 精은 化로 歸依 또는 歸結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氣歸精 精歸化’를 뒤의 ‘精食氣 形食味 化生精 氣生形 味傷形 氣傷精 精化爲氣 氣傷於味’ 문장과 함께 살펴보면 氣는 精으로 歸結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形을 生하는 출발점이 되어 氣의 방향성에 모순이 발생한다.

『素問·陰陽應象大論』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琴桐樹¹⁾는 「陰陽應象大論」을 懸吐·校勘하고

* Corresponding author : Eom Dongmyung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460
Iksandae Rd, Iksan City, Jeonbuk, ROK
Tel: +82-63-850-6941 Fax: +82-63-842-4328
E-mail: haksan@wku.ac.kr

접수일(2014년 07월25일), 수정일(2014년 08월14일),
게재확정일(2014년 08월19일).

1) 琴桐樹.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89.

諸家의 주장을 소개하며 國譯을 하였으나 ‘氣歸精 精歸化’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고, 방정균²⁾은 「陰陽應象大論」중 五味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저자들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素問·陰陽應象大論』의 ‘氣’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문장정체에서 위 구절이 갖는 구조를 살피는 방법을 통해 ‘味歸形 形歸氣 氣歸精 精歸化 精食氣 形食味 化生精 氣生形 味傷形 氣傷精 精化爲氣 氣傷於味’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 論

『素問·陰陽應象大論』의 해당 原文은 다음과 같다.

水爲陰 火爲陽 陽爲氣 陰爲味 味歸形 形歸氣 氣歸精 精歸化 精食氣 形食味 化生精 氣生形 味傷形 氣傷精 精化爲氣 氣傷於味

1. 역대 의가들의 견해

1.1. 王冰의 견해

王冰은 ‘氣歸精 精歸化’에 대하여 “精食氣이기 때문에 氣는 精으로 歸依하고, 化生精이기 때문에 精은 化로 歸依한다.”³⁾고 하였고, ‘化生精 氣生形’에 대하여 “精微의 液은 오직 血이 化生하여 生成되며 形質이 바탕을 갖게 한다.”⁴⁾고 하였다.

2.2. 馬蒔의 견해

馬蒔는 ‘氣歸精 精歸化’에 대하여 “氣歸精이라는 것은 精이 萬物의 氣를 먹기 때문에 精은 氣에 의해 生하는 것이다. 즉 精이 氣를 먹는다고 이르는 것과 같을 따름이다. 精歸化라는 것은 精을 化生한다는 것이니 化는 精의 母가 되기 때문에 精은 化에 歸依할 따름이다.”⁵⁾고 하였으며, ‘化生精 氣生形’에 대하

여 “化生精이라는 것은 앞의 精歸化의 의미이며, 氣生形이라는 것은 形歸氣의 의미이다.”⁶⁾라고 하였다.

2.3. 張志聰의 견해

張志聰은 ‘味歸形 形歸氣 氣歸精 精歸化’에 대하여 “陰은 味가 되고 陰은 形을 이룬다. 地는 五味로 사람을 먹이고 이로 形을 기르기 때문에 ‘味歸形’이 되며, 陽은 氣로 化하므로 諸陽의 氣는 皮膚肌膜의 사이에 會通하여 形을 生하기 때문에 ‘形歸氣’이 된다. 陽氣는 陰精에서 生하기 때문에 ‘氣歸精’이 되며, 水穀의 精氣는 이 精을 化生하기 때문에 ‘精歸化’가 된다.”⁷⁾고 하였으며, ‘化生精 氣生形’에 대해서는 “水穀의 精氣가 精을 化生하고 諸陽의 神氣는 形을 生養한다. 天이 五氣로 사람을 먹이고 地는 五味로 사람을 먹이니, 氣味는 精을 化生하고 形을 生養한다.”고 하였다.

3.4 張景岳의 견해

張景岳은 ‘氣歸精 精歸化’에 대하여 “氣라는 것은 眞氣이니 하늘에서 받은 마이고 穀氣와 더불어 몸을 채우는 것이다. 人身의 精血은 氣로 말미암아 化生하므로 氣는 精에 歸依하는 것이다. 精은 坎水이니 天一이 水를 生하고 五行의 가장 우선이 되므로 萬物의 初生이 된다. 萬物이 처음 生할 때에 그 形體는 모두 물과 같아서 精으로 말미암아 氣를 化生하고 氣가 神을 化生하니 水는 萬物 變化 근원이 되므로 精는 化에 歸依한다.”⁸⁾고 하였고, ‘化生精 氣生形’에 대하여 “萬物이 化生함에 반드시 精으로부터 말미암는 까닭에 精을 化生하니, 氣가 모이면 形이 生하고 氣가 흩어지면 形이 죽는다.”⁹⁾고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王冰과 馬蒔는 ‘精食氣’와 ‘化生精’을 근거로 ‘氣歸精’과 ‘精歸化’를 설명하여 ‘氣’의 의

2) 방정균. 『素問·陰陽應象大論』 “五味傷五體”에 대한 考察. 韓國醫史學會誌. 2003. 16(2).
3) 王冰. 新編 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5.
4) 王冰. 新編 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5.
5)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p.49~50.

6)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50.
7)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明清名醫全書大成, 張志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5.
8) 張景岳. 類經(中國醫學大系44). 서울. 麗江出版社. 1995. p.13.
9) 張景岳. 類經(中國醫學大系44). 서울. 麗江出版社. 1995. p.13.

미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張志聰은 문장전체를 陰陽의 對待로 간주하여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氣’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張景岳은 ‘氣’를 ‘眞氣’로 간주하여 人體 생성의 기본물질로 파악하였다. 또한 王冰과 張景岳은 ‘化生精’에 대해 精을 化生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馬蒔는 ‘化生精 氣生形’에 대해 ‘氣歸精 精歸化’의 역으로 간주하였다.

다른 역대 의가들도 대개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데, 모두 ‘氣歸精 精歸化’의 ‘氣’와 ‘化生精 氣生形’의 ‘氣’를 구분하지 않았다.

2. 최근 견해

2.1. 董尚朴의 論文

董尚朴은 자신의 論文에서 역대 의가들이 대체로 ‘化’를 ‘化生’의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化’를 ‘味·形·氣·精’과 동등한 객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味·形·氣·精·化의 의미에 대해서 “味는 飲食物(藥物포함)의 味이고, 形은 생물의 형태 조직이고, 氣는 생물체의 기능이 발현되도록 하는 기초물질이며, 精은 생물체 중 생식능력의 정미로운 물질, 즉 生殖之精이고, 化는 生殖之精이 새로운 생물체를 化生하고 탄생시키는 과정 혹은 상태”라고 정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味·形·氣·精·化의 관계를 설명하여 “飲食物의 味는 생물의 형태조직을 자양하고 생성하며 확충하고, 형태조직은 생명체가 활동능력과 기능을 갖도록 하는 氣를 만들어내고, 氣의 작용은 생명체가 생식능력을 갖도록 하는 精을 만들며, 精은 化의 작용과 과정을 함축하고 있으며, 때때로 이를 발현한다. 化의 발현은 곧 새생명의 탄생이며 또한 생식기능을 가진 精을 만들고, 精은 또한 氣를 생성하며, 氣는 또한 형태조직을 생성하고, 형태조직은 음식물의 자양에 의지한다.”고 하였다¹⁰⁾.

이와 같은 견해는 ‘味·形·氣·精·化’의 관계를 일직선적인 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味歸形 形歸氣 氣歸精 精歸化’를 생명체가 음식물을 섭취하여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생식능력을 갖게 되는 과정으

로, ‘精食氣 形食味 化生精 氣生形’을 새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으로 이해한 것이다.

2.2. 『圖解黃帝內經素問』

劉越은 『圖解黃帝內經素問』¹¹⁾에서 도해를 통해 味·形·氣·精·化의 상호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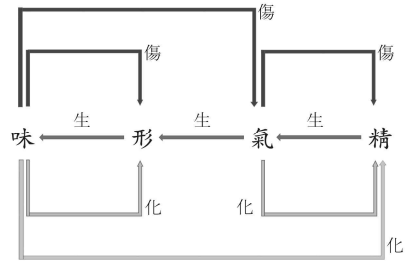


Fig. 1. Relations ; flavor, shape, Qi, essence and change

이 견해는 董과 마찬가지로 味·形·氣·精의 관계를 일직선적 관계로 이해한 것이지만, 차이점은 ‘化’를 ‘化生’의 동사로 이해하여 味·形·氣·精·化가 아닌 味·形·氣·精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Ⅲ. 考 察

역대 의가들은 ‘味歸形 形歸氣 氣歸精 精歸化 精食氣 形食味 化生精 氣生形’의 味·形·氣·精·化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전체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견해로 董은 味에서 化로 이행되는 과정은 생명체의 생명현상 발현과정으로, 化에서 味로 이행되는 과정은 새생명이 발현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고, 劉는 『素問·陰陽應象大論』의 문장을 문자적으로 도해하였으나 ‘味歸形 形歸氣 氣歸精 精歸化’에서 化를 味·形·氣·精과 같이 객체로 두지 않고 味·形·氣·精의 작용으로 이해하였다. 이처럼 味·形·氣·精·化의 관계에 대해서 역대 의가들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董과 劉은 모두

10) 董尚朴. 关于『素问』“味归形形归气...”的注释. 浙江中医杂志. 2004. 39(3). pp.106~107.

11) 劉越. 圖解. 圖解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 pp.37~38.

味·形·氣·精·化의 관계를 일직선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水爲陰 火爲陽 陽爲氣 陰爲味’는 水火, 陰陽, 氣味の 對句로 이루어져 있는데, 뒤에 나오는 ‘味歸形 形歸氣 氣歸精 精歸化 精食氣 形食味 化生精 氣生形 味傷形 氣傷精 精化爲氣 氣傷於味’를 對句로 보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素問·陰陽應象大論』의 문장을 對句형식으로 나누어 보면 표.1과 같다.

즉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味歸形 形歸氣 氣歸精 精歸化’는 味·形·氣·精·化가 일직선상으로 전개해나가는 과정이 아니며, ‘味歸形 形歸氣’는 ‘味形氣’가 전개되는 과정으로, ‘氣歸精 精歸化’는 ‘氣精化’가 전개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對句를 기반으로 전체 문장을 이해한다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자연의 속성인 水火는 陰陽의 부호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인체 生命活動에 견주어 보면 ‘氣와 味’는 水穀의 氣味로써 氣는 陽의 속성이고 味는 陰의 속성이며, ‘精과 形’은 人體構成物質로써 精은 陽의 속성을 갖은 精氣이고 形은 陰의 속성을 갖은 形質이며, ‘化와 氣’는 人體機能活動으로써 化는 陽의 속성을 갖은 氣化이고 氣는 陰의 속성을 갖은 氣質 또는 氣機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形歸氣’의 氣와 ‘氣歸精’의 氣가 문자는 동일하지만 의미는 다른 것¹²⁾이며, 氣¹은 水穀의 氣로 氣²는 氣質의 氣 또는 氣機의 氣로 파악할 수가 있다. 또한 味·形·氣·精·化의 과정을 水穀·人體構成物質·人體機能活動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고, 이를 표로 나타내면

Table 1. Reorganized paragraphs based on antithesis

水爲陰	陰爲味	味歸形	形歸氣	形食味	氣生形	味傷形	精化爲氣	氣傷於味
火爲陽	陽爲氣	氣歸精	精歸化	精食氣	化生精	氣傷精		

Table 2. Understanding paragraphs based on antithesis

自然	陰陽	水穀	人體構成物質	人體機能活動
水	陰	味(水穀之味)	形(形質)	氣 ² (氣質, 氣機)
火	陽	氣 ¹ (水穀之氣)	精(精氣)	化(氣化)

표.2와 같다.

인체가 水穀을 섭취하면 水穀의 味는 人體構成物質인 形質을 만들고, 形質에서 人體機能活動인 氣質(氣機)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되고, 水穀의 氣는 人體構成物質인 精氣를 만들고, 精氣에서 人體機能活動인 氣化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精氣는 水穀의 氣를 먹고[精食氣¹] 形質은 水穀의 味를 먹으며[形食味], 精氣에서 발생된 氣化[精歸化]는 다시 精氣를 생성하고[化生精] 形質에서 발생된 氣質[形歸氣²]은 다시 形質을 생성[氣²生形]하게 된다. 아울러 水穀의 味가 지나치면 形質을 傷[味傷形]하고, 水穀의 氣가 지나치면 精氣를 傷[氣¹傷精]하게 된다.

또한 ‘精化爲氣’는 陰陽의 傳化를 나타내는 것인데, 의미는 陽의 속성을 지닌 精氣가 陰의 속성인 氣質로 傳化하는 것[精化爲氣²]이며, 水穀의 味가 지나치면 形質을 傷[味傷形]하듯이 氣質도 傷하는 것[氣²傷於味]이다. 다만 ‘精化爲氣 氣傷於味’는 對句가 없는데,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對句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즉 ‘精化爲氣² 氣²傷於味’의 精은 形과 對句를 이루고 있고 氣²는 化와 對句를 이루고 있으므로 ‘形化爲化 化傷於氣¹’란 對句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의미는 陰의 속성을 가진 形質이 陽의 속성인 氣化작용으로 傳化하는 것[形化爲化]이며, 水穀의 氣가 지나치면 精氣를 傷[氣傷精]하듯이 氣化도 傷하는 것[化傷於氣¹]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3과 같다.

味·形·氣·精·化의 관계와 형성과정을 圖解하면 그림.2와 같다.

Table 3. New paragraphs based on antithesis

自然	陰陽	水穀	人體構成物質	人體機能活動	陰陽의 傳化	飲食過傷
水	陰	味	形(形質)	氣 ² (氣質, 氣機)	精化爲氣 ²	氣 ² 傷於味
火	陽	氣 ¹	精(精氣)	化(氣化)	形化爲化	化傷於氣 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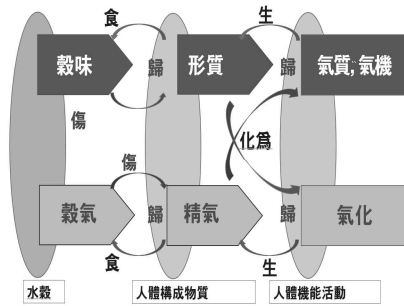


Fig. 2. Relations and Formations ; flavor, shape, Qi, essence and change

味·形·氣·精·化의 관계와 형성과정을 바탕으로 『素問·陰陽應象大論』의 ‘水爲陰 火爲陽 陽爲氣 陰爲味 味歸形 形歸氣 氣歸精 精歸化 精食氣 形食味 化生精 氣生形 味傷形 氣傷精 精化爲氣 氣傷於味’를 圖解하면 그림.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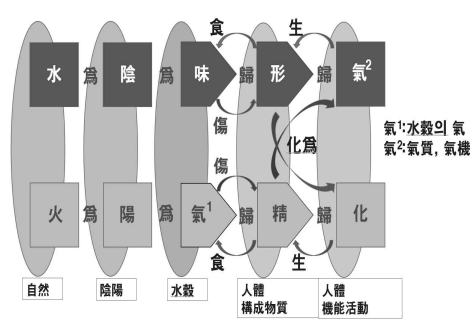


Fig. 3. Diagram of 『Suwen·Yinyangyingxiangdalun』 Paragraphs

IV. 結 論

대개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味·形·氣·精·化’에 대해서 일직선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있으나, 氣의 方

12) 편의상 ‘形歸氣’의 氣는 氣²로 ‘氣歸精’의 氣는 氣¹로 나타내고자 한다.

向性的 모호함 때문에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味·形·氣·精·化’ 관련 문장은 처음에 水火의 對待관계로 陰陽을 언급하고 또한 氣味를 언급하였기 때문에 ‘味·形·氣·精·化’의 관계도 같은 형식으로 살펴되어야 한다. 따라서 ‘味·形·氣·精·化’는 味·形·氣의 관계와 氣·精·化의 관계로 나누어 살펴야 하는데, 味·形·氣의 氣와 氣·精·化의 氣를 분리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氣와 味는 水穀의 氣味이며, 形과 精은 人體를 구성하는 物質이고, 氣와 化는 人體가 발현하는 機能이 된다. 또한 味·形·氣의 관계에서 味는 穀味이며, 形은 形質이고, 氣는 氣質로 볼 수 있으며, 氣·精·化의 관계에서 氣는 穀氣이며, 精은 精氣이고, 化는 氣化로 볼 수 있다.

References

1. Keum KS. A Study on the Eum Yang Eung Sang Dai Lon of the Suwen. Wonkwang Univ. Doctorate Thesis. 1989.
琴垌樹.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2. Bang JK. A Reseach on the “Five Tastes Hurt Five Structures” on the Eum Yang Eung Sang Dai Lon of the Suwen. J. of Korean Medical History. 2003. 16(2).
방정균. 『素問·陰陽應象大論』 “五味傷五體”에 대한 考察. 韓國醫史學會誌. 2003. 16(2).
3. Wang B. Sinpyeon Hwangjenegyongsomun. Seoul. Daeseongmunhwa Co. 1994.
王冰. 新編 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4. Ma S. Huangdineijingzhuzhengfawei. Beijing. Xueyuan Press. 2005.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

- 社. 2005.
5. Zhang ZC. Huangdineijingjizhu (Mingqingmingyiquanshudacheng, Zhang Zhicong). Beijing. Zhongguozhongyao Press. 1999.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明清名醫全書大成, 張志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6. Zhang ZJ. Leijing(Junggukeuihakdaegye44) Seoul. Lyeogang Press. 1995.
張景岳. 類經(中國醫學大系44). 서울. 麗江出版社. 1995.
 7. Dong SP. Annotation about “Taste Goes to Feature, Feature Goes to Qi …” on Suwen. Zhejiang J. of TKM. 2004. 39(3).
董尚朴. 关于『素问』“味归形形归气…”的注释. 浙江中医杂志. 2004. 39(3).
 8. Liu Y. Tujiehuangdineijingsuwen. Beijing. Renminweisheng Press. 2003.
劉越 圖解. 圖解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